

발행인: 엄재일
편집인: 이한정
발행처: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행일: 2014년 10월 31일
URL: <http://society.kisti.re.kr/~ksli/>

110-745
서울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이한정 교수 연구실내
전화: (02) 760-0251
e-mail: hanjung@skku.edu

1. 월례 논문 발표회 및 강독회

- ▶ 11월 월례 논문 발표회가 11월 8일 숙명여대 진리관 301호에서 열립니다. 이번 월례회에는 김지혜 선생님(승실대)과 이용훈 선생님(충남대)의 기획논문 발표와 이용훈 선생님(충남대), 남승호 선생님(서울대)과 임동식 선생님(홍익대)의 일반논문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정 및 초록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후 식사에 이어 강독회가 열립니다. 이번 강독회는 김동성 선생님(고려대)께서 ‘기계학습과 보편문법’을 주제로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강독 논문은 본 소식지와 함께 배포해 드리며, 강독회와 월례회 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월례회 또는 강독회에서 다루고자 희망하시는 주제 또는 논문이 있거나, 발표를 희망하시거나 발표자를 추천하고자 하시면 연구이사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논문 발표회: 유은정 (ejyoo@snu.ac.kr), 전영철 (ycjun@snu.ac.kr), 양정석 (yjsyang@yonsei.ac.kr), 최승권 (choisk@etri.re.kr)

강독회: 김종복 (jongbokkim@gmail.com), 위혜경 (hkwee@dankook.ac.kr), 정소우 (swchung@sungshin.ac.kr)

2. [언어와 정보] 논문 모집

- ▶ [언어와 정보] 편집위원회는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와 정보]에 논문을 게재할 분들은 소정의 논문투고신청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음)와 심사용 논문(영문 요약 필수 포함)을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심사용 논문은 아래아 한글이나 MS Word, LaTeX 등 어떠한 조판 시스템을 사용하셔도 되며, 스타일은 자유입니다. 그 외 논문 투고나 심사에 대한 규정은 학회 홈페이지 (<http://society.kisti.re.kr/~ksli/>)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시 투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게재하고자 하는 특정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를 원하시면 발간일 기준 적어도 60일 이전에 투고를 하셔야 합니다. 발간 일정과 원고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마감일을 넘겨 투고한 논문은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적인 이유로 해당 호수의 [언어와 정보]에 게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제18권 2호 (2014년 12월 31일 발간): 2014년 10월 30일 원고 마감
 - 제19권 1호 (2015년 6월 30일 발간): 2015년 4월 30일 원고 마감
- ▶ [언어와 정보]는 일반 논문(general paper) 외에도 소고(squib), 서평 또는 논평(review), 또 이에 대한 답론(reply) 등 여러 형태의 투고를 받습니다. 논문 투고 시 투고 형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

▶ 논문 심사료와 게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사료: 60,000원 (3인 심사 기준, 추가 심사시 20,000원씩 추가)

- 논문 게재료 (3인 심사, 20쪽 분량 기준):

1) 연구비 수혜 논문: 2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330,000원)

2) 연구비 수혜를 받지 않은 일반논문:

(i) 저자 중 한 사람 이상이 전임인 경우 170,000원 (심사료 포함 총 230,000원)

(ii) 모든 저자가 전임이 아닌 경우 20,000원 (심사료 포함 총 80,000원)

- 참고

1) 논문 출판 시 라텍 편집비를 따로 받지 않음.

2) 논문의 분량은 최종 조판 기준 20쪽을 기준으로 하되, 30쪽까지는 별도의 추가 금액을 받지 않으나, 31쪽부터는 쪽당 10,000원을 게재료에 추가.

▶ 논문 투고에서 게재까지의 절차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투고신청서 작성 (투고자, 서식은 홈페이지) -> [2] 투고 (투고자) -> [3] 심사료 입금 (투고자) -> [4] 심사 의뢰*3인 (편집위원회) -> [5] 심사 결과 취합 (편집위원회) -> [6] 심사 결과 통보 (편집위원회) -> (게재 확정된 경우 다음 절차 진행, 게재 불가인 경우 [6]에서 종료) -> [7] 수정 보완요구서 (편집위원회) -> [8] 수정보완이행확인서 (투고자) -> [9] 게재료 납부 (투고자) -> [10] 수정 논문 제출 (투고자) -> [11] LaTeX 조판 작업 (편집위원회) -> [12] 교정*3회 (투고자) -> [13] 출판 (편집위원회/출판사)

▶ 논문 투고나 게재에 관하여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을 통하여 편집위원장인 류병래 교수 (ryu@cnu.ac.kr 혹은 kslijournal@gmail.com)에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 우리 학회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납부하신 회비로 운영됩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는 월례 발표회장에서 또는 아래의 학회계좌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82-598367, 예금주: 김미숙)

연회비: 정회원 40,000원, 준회원 20,000원, 기관회원 100,000원

평생회비: 400,000원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 회원님들께서는 올해부터는 일반회원이 되어 4만원씩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래 명단 참조)

▶ 회원주소록은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소 및 이메일, 전화번호가 바뀌신 분은 변경된 내용을 총무이사 (hanjung@skku.edu)에게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수님들과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들이 신입회원으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 2014년도 회비 납부 현황

▶ 평생회원: 강범모(고려대), 곽은주(세종대), 권희상(한밭대), 김용범(광운대), 김은주(이화여대), 김종복(경희대), 김지영(이화여대), 노용균(충남대), 박명관(동국대), 박병수(경희대), 박소영(상명대), 박은주(오사카대), 박종철(KAIST), 유은정(서울대), 윤영은(이화여대), 이기용(고려대), 이영현(조선대), 이익환(연세대), 이한정(성균관대), 이현우(인하대), 전영철(서울대), 정대호(한양대), 정영환(인하공전), 정재현(충북대), 조세연(강원대), 조영순(전남대), 최재웅(고려대), 최혜원(이화여대), 홍성심(충남대)

[2003년 12월 이전 평생회비 납부회원: 연회비 선납 처리 ~2012년]

김경애(한경대), 김경학(수원대), 김량혜윤(고려대), 김미경(대덕대), 김성목(SKT), 김용환(양산대), 김창익(호서대), 류병래(충남대), 윤애선(부산대), 윤평현(전남대), 이남근(조선대), 이민행(연세대), 이예식(경북대), 정소우(성신여대), 정찬(동서대), 채명희(조선이공대), 채희락(한국외대), 최규련(연세대), 최기선(KAIST), 최현숙(영남대), 한영균(연세대)

- ▶ 정회원: 박유경(서울대), 송상헌(고려대), 염재일(홍익대), 임서현(서울대), 이영주(서울여대), 이정민(서울대), 이주익(경북대), 장석진(서울대), 홍민표(명지대)
- ▶ 준회원: 박은영(충남대), 신재연(서울대), 윤혜림(홍익대), 이해연(서울대)
- ▶ 명단에 착오나 누락 사항이 있으면 총무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월례회/강독회 장소 오시는 길

- ▶ 이번 월례회와 강독회는 숙명여대 진리관 301호에서 열립니다.
- ▶ 숙명여대 제1캠퍼스 오시는 길: 4호선 숙대입구 역 10번 출구에서 효창공원 방향으로 왼쪽으로 돌아 아나와 갈월지하도를 건너 5분 정도 도보로 직진하면 오른쪽에 제1캠퍼스 정문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정문까지 도보로 약 10-15분). 버스와 자가운전으로 오시는 법은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버스: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1>
자가운전: <http://www.sookmyung.ac.kr/contents/contents.jsp?cmsCd=CM0072>
- ▶ 주차: 정문 입구에 있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시고, 할인권을 (4시간 주차 2천원) 총무이사를 통해 구입하시면 됩니다.



- ▶ 제1캠퍼스 진리관은 아래 지도에서 4번 건물입니다 (10번이 정문).
- ▶ 월례회 후 점심식사는 숙명여대 근처 '더함' 한정식(02-707-3692)에서 있습니다.



한국언어정보학회 2014학년도 11월 월례회 및 강독회 일정표
월례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301호 일시: 11월 8일 9:30 – 12:40

시간	구분	발표자	논문제목	사회
09:30-10:30	기획	김지혜 (숭실대) 이용훈 (충남대)	An Experimental Study of Subjecthood Diagnostics in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MSCs) in Korean	양정석 (연세대)
10:30-11:10	일반	이용훈 (충남대)	Implementation of the Scrambling in the Korean Type-Inheritance Combinatory Categorical Grammar	
Coffee Break (10분)				
11:20-12:00	일반	남승호 (서울대)	한국어 부정의 영향권 해석과 상위언어적 '부인'	
12:00-12:40	일반	임동식 (홍익대)	Concessive conditionals without 'even'	

강독회 장소: 숙명여대 진리관 301호 일시: 11월 8일 14:30 – 16:00
주제: 기계학습과 보편문법

발표자	김동성 (고려대)
논문	Lappin, Shalom and Stuart Shieber. 2007. Machine Learning Theory and Practice as a Source of Insight into Universal Grammar, <i>Journal of Linguistics</i> 43(2), 393-427. Clark, Alexander, Gianluca Giorgolo, and Shalom Lappin. 2013. Statistic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ity Judgments: the Limits of N-Gram Models. Proceedings of the Workshop on

2014년 11월 월례회 발표논문 초록

An Experimental Study of Subjecthood Diagnostics in Multiple Subject Constructions (MSCs) in Korean

김지혜 (숭실대) & 이용훈 (충남대)

Though there are numerous studies on the Multiple Nominative/Subject Construction in Korean, few have experimentally addressed the Subjecthood of the nom-marked NPs in MSCs. The following sentence illustrates an example of MSCs.

- (1) Cheli-**ka** apeci-**ka** pwuca-ta.
Cheli-nom father-nom rich-decl
'Cheli's father is rich.'

To the extent that Subjecthood is dealt with, an implicit but widespread assumption seems to be that, outside of MSCs, Korean is a uniform Subject language, not a mixed Subject language (in the sense of Dixon 1994 and Falk 2006). This assumption undergirds attempts to show that there is a unique Subject in MSCs (Yoon 1986, Hong 1991, Schütze 2001).

Against this backdrop, Yoon (2004, 2009) claimed that MSCs instantiate a mixed Subject construction, where the rightmost NP (*apeci-ka* in (1)), an (external) argument of the predicate, functions as the Grammatical Subject (GS); and the outer NP (*Cheli-ka*) functions as a Major Subject (MS). Yoon (2009) claimed that among the proposed diagnostics for Subjects in Korean (honorific agreement, plural copying, obligatory control, subject-oriented reflexives, adjunct control, control of null subjects in coordination), the first four are controlled by GS, whereas the remainder are controlled by MS. The reason is that GS is a Subject *qua* a Prominent Argument while MS is a Subject *qua* Pivot, in the sense of Falk (2006). Yoon (2009) hypothesized that GS diagnostics track thematic prominence, while MS diagnostics track structural/discourse prominence.

Yoon's proposal is novel but based on informal judgments, which are quite subtle. Therefore, we investigated it experimentally. The current study investigated i) whether some of the Subjecthood diagnostics in Korean, which have been widely assumed to be valid in the literature of Korean syntax and mostly cited by Yoon (2009), are really valid in picking out the subject in Korean sentences, ii) if the tested Subjecthood diagnostics are also applicable in Korean MSCs.

Seventy Korean speakers performed a Magnitude Estimation task that was designed to examine the six Subjecthood diagnostics. For each diagnostic, we tested 1) whether it is sensitive to Subjecthood in single

subject construction (non-MSCs), and if it is, 2) whether it is still applicable in MSCs. The test material was a survey-type questionnaire composed of 280 Korean sentences representing various Subjecthood properties in both single-subject constructions and MSCs. The comprehensive results are still in the process of various statistical analyses; some parts of the results comparing different diagnostics will be presented for the discussions of furthe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as well as a direction for the future study.

Implementation of Scrambling in the Korean Type-Inheritance Combinatory Categorical Grammar

이용훈 (충남대)

Scrambling raises a problem to the traditional Combinatory Categorical Grammar (CCG; Steedman, 1996, 2000) or the Type-inheritance Combinatory Categorical Grammar (TCCG; Beavers, 2002, 2004), since these frameworks prefer a fixed order of language. Of course, there are some mechanisms which can handle the phenomena in these frameworks, such as a commuting combinator in CCG or a lexical rule in TCCG. However, these mechanisms increase the complexity of the syntactic and lexical components of the grammar. This study proposes another method to avoid this problem and scrambling is handled with functional composition in this study. One of the problems to implement scrambling in the Korean Type-inheritance Combinatory Categorical Grammar (K-TCCG) is how to preserve the argument structure when adverbs intervene between the arguments of the predicate. This study proposes an efficient method which solves this problem without any further mechanisms in the combinatory rules.

References

- Beavers, J. 2002. A CCG implementation for the LKB. LinGO Working Paper #2002-8. Stanford, CA: CSLI.
Beavers, J. 2004. Type-inherited Combinatory Categorical Grammar. In Proceedings of the 20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Article No. 57.
Steedman, M. 1996. Surfac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Cambridge, MA: MIT Press.
Steedman, M. 2000. The Syntactic Process. Cambridge, MA: MIT Press.

한국어 부정의 영향권 해석과 상위언어적 '부인'

남승호 (서울대)

본 논문은 한국어 부정문의 중의적 해석 양상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답을 찾고자 한다. (1) 상위언어적 부정(MN, meta-linguistic negation)이 명제를 부정할 수 없다? (Horn 1990, Carston 1996), (2) MN이 후행 정정문의 발화를 반드시 요구하는가? (3) Horn의 상위언어적 부정(형식부정, 함축부정, 전제부정 등)은 동질적인가? (4) 한국어 부정문의 중의성은 의미론적인가 화용론적인가? (송석중 1981, Nam 1994, May 1985, Heim & Kratzer 1998), (4) 부정극어와 MN이 공기하지 않는 이유는? (5) 조건문 같은 특정 접속문은 왜 MN을 허락하지 않는가? (6) 부정문의 중의성 해석은 양화사 간의 영향권 중의성의 설명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

Concessive conditionals without ‘even’

임동식 (홍익대)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양보 (concessivity)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건문은 *even if*의 형태로 실현된다. 하지만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아래의 (1)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떠한 조건이 양보의 의미로 해석되기 위해서 반드시 *even*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1) *If individualism in SNU seems to be marginal, it is nevertheless a reality.* (세종 한영병렬말뭉치 RB0423)

이 발표는 세종계획 한영병렬말뭉치에서 *even* 없는 양보조건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영어의 조건문들을 추출하여, 이 조건문들의 공통적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 한다. 특히 이 발표는 Guerzoni and Lim (2007)에서 분석된 *even if* 조건문의 의미 분석의 결과를 연장/재해석하여, 양보조건문이라는 개념을 '전건과 후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조건문'으로 일반화하려고 시도할 것이다.